

거룩한방파제, 동성애 쿼어축제 반대 대규모 맞불 집회

건강한 가정과 다음세대 수호 위해 약 30만 결집



지난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최측 추산 약 30만 명의 시민과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대한민국을 향한 연원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문화 확산에 강력 반대 의지를 밝혔다.

통합국민대회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쿼어축제에 맞서 건강한 가정과 다음세대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돼 왔다. 특히 올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학생인권특별법 및 인권정착기본법안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등 네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

이날 집회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His Light 미니스트리’의 북 연주와 리오 국악팀의 무대가 이어졌다. 본 행사는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개회식, 3부 국민대회, 4부 퍼레이드, 5부 워십&프레이즈 순서로 진행됐다.

1부 기도회에서 대회장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가장한 반성경적·반윤리적 악법이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왜 악법 제정을 막고, 가정과 자녀, 대한민국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개회식과 3부 국민대회에서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엄보연 목사(한사랑교회) 등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특별히 대만의 탈동성애운동가인 주정위 사무총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성애의 위험성을 증언했다.

이 외에도 김원형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서문화 대표(아름다운피켓), 주요셀 목사(반동성애 기독교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만보 걷기 및 출산 장려 캠페인 진행

건강 세미나 출산장려 캠페인 대국민 홍보 나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진 목사)와 출산장려위원회(위원장 안상운 목사)는 지난 6월 12일 공동으로 건강 세미나와 만보 걷기,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함께하면서 저출생 극복 운동에 힘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위원회가 그동안 펼치던 체육활동을 만보 걷기로 대신하면서, 단순한 걷기에 나이가 출산장려위원회가 펼쳐고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함께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이날 캠페인에는 한장총 산하 26개 교단 총무 및 사무총장, 체육위원회와 출산장려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오전 1부 예배에 이어 2부 건강 세미나, 3부 오전, 오후 4부 만보 걷기 및 출산장려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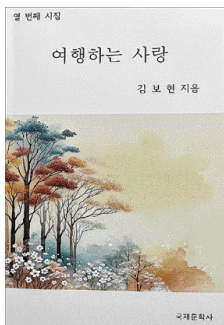
점심식사 후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중로5가 일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란 글씨가 새겨진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출산 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한장총 산하 출산장려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CTS기독교1V를 통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주간 매일 세 차례씩(오전 8시 25분, 오후 2시 45분, 11시 55분) 캠페인 방송을 하고 있다.

시집 여행하는 사랑

김보현 목사가 열번째 시집 ‘여행하는 사랑’을 출간했다. 김보현 목사의 정신은 진실성과 순전함에 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사리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실망속에 서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 삶과 양이 일치된 그의 언어는 역지로 꾸며내는 조작적 감동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난 율법이다. 그가 이번 시집을 통해 전하려는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 세상의 부조리와 허위에 지친이들에게 그는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시집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꿈꾸며 마음 깊은 곳의 따뜻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의 이번 열 번째 시집은 단순히 신앙고백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길위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그리움,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이며 이시대의 안으로 다시 쓴 시편이다. 김 목사는 「강물 흘러라」, 「내



영혼의 옷, 「명상의 꽃다발」, 「수도자의 노래」 등의 작품으로 국제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내 영혼의 시집」, 「빈들의 잔치」, 「머물다 가는 사랑」, 「꿈엔들 잊으리」 등 다수의 시집을 발간 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시집 여행하는 사랑은 제1부 꺼지지 않는 사랑, 제2부 느낌표 인생, 제3부 봄의 왈츠 제4부 손 한번 더 잡으며 구성되어 105편의 시가 담겨있다. 저자/김보현 출판사/국제문화사

한국교회 “이번 대선은 회복과 희망의 새 출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개혁실천연대, 미래목회포럼 대선 논평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개혁실천연대, 미래목회포럼은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국민적 열망의 결실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 국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요청하며, 한국교회가 정의와 화해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상규 목사, 이하 기장)는 지난 6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선거를 두고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을 섬기는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도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정서적, 관계적 분열로 일상의 파괴를 겪었다. 오늘의 새로운



출발은 단지 정치의 변화가 아닌, 일상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희망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한 개혁연대는 “이제 교회는 시대의 정의와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침묵하거나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과 정의, 약자의 편에서 민주적 가치와 신앙의 양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 간의 혐에한 대립,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을 벗고 통합과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국교회와 소통을 당부한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교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선교회,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 개최

7월 3일 교회학교 교사 및 사역자 대상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7월 3일 유초등부 사역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줌(Zoom)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장소는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도어가 제작한 어린이 전용 선교 교육 자료인 ‘기도여권’과 ‘어린이 박해지도’를 소개하고, 이를 교회학교와 가정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자료 활용법은 물론, 아이들이 세계 기독교 박해 현실을 이해하고 나리별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게 된다.

세미나는 총 1시간 40분간 진행되며 △오픈도어 소개 △기도여권 및 박해지도 사용법 △활용 사례 및 활동 아이디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발표에



는 김경복 사무총장을 비롯해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직접 나서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도여권’, ‘어린이 박해지도’, 그리고 기타 선교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오픈도어선교회는 세계 26개국에서 1300여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국제 선교단체로, 한국지부는 국내 교회에 박해 실상을 알리고 기도와 후원을 통한 연대를 지속해오고 있다.

환대의 신학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구성원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낯선 이와 빈번히 만나게 된다. 사회는 유연해지고 구성원의 이동이 잦아지는 가운데, 타 문화권에서 나의 문화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으며 내가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즉, 타자는 늘 내 삶에 찾아오며 나도 누군가의 삶에서 타자가 된다.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을 내포한다. 사회 안정을 위해 제도를 잘 준비하더라도, 현실을 뒤따라가는 제도가 현실을 온전히 쫓지는 못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늘 불안이 존재하며, 선 곳은 사회에서 많은 이가 고향과 안식을 상실하는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런 만큼 인류의 오랜 지혜인 ‘환대’가 20세기 이후에 인문·사회 분야는 물론 산업 영역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일은 자연스럽다. 타자와 조우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환대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환대는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자 초기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였지만, 오늘날에는 표면만 남은 모호한 개념 혹은 불가능한 이상으로 취급받곤 한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환대 사이의 벌어진 간격에 다리를 놓는 이 책은, 성경과 삼위일체론을 바탕으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인류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사유와 대화하면서 기존의 환대 담론을 확장한다. 공간, 선물, 집, 식사, 사람, 대우, 관계, 조건 없는 환대, 책임 등을 논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부딪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환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김진혁 출판사/IVP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제2001-3 호)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주)가나다산업의 가치입니다!

소방업계 40여 년의 노하우가 안전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1978년 창립이래 소방공사 및 소방시설 점검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후 (주)가나다산업으로 법인 전환하여 소방업계 40여 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 기술진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점검업 방화관리 및 위험물 특수건축물공사 등 소방기술용역 전반을 동시에 수행하는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장 박근주

터드립교회

대표이사 박성민

시냇가푸른나무교회